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⑥ 40 웃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끝든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트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새정치민주연합>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특선생활채널	40 결혼이야기(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30 내조의 여왕(재)	00 KBS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투명인간 스페셜(재)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재)
⑫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15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킬미 힐미>(재)	00 SBS12뉴스 30 건강클리닉
①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장어(재)	10 세상의 모든 다크(재)	30 키즈 사이인스타5(재)	3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새정치민주연합>
②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역사저널 그날(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역사저널 그날(재)	30 퓌! 퓌! 키즈쿨	00 토크콘서트 화통
③ 00 직언직설	00 바른말 고운말(재) 05 우리말 겨우기(재)	4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05 과학마술단 40 경제 매거진 M 스페셜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 사이트
④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4 10 생명최선(재)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40 TV우치원 공다공	25 일일특별기획 <과학의 차여사> <압구정 백야>(재)	00 이야기 보따리 30 푸리키 탐구생활
⑤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애니월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7 30 필통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새 정치 민주연합 당대표 토론회
⑦ 10 갈때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달려라 장미>
⑧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형선만이 내사랑>	30 결혼이야기 55 버터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30 리얼스토리 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연예
⑨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의 사람들 55 숨터	50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00 수목미니시리즈 <킬미 힐미>	00 드라마스페셜 <하이드 지킬, 나>
⑪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 박명 윤건의 더 콘서트	10 투명인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예고별리디 즐겨운 家
⑫ 40 먹거리 X 파워(재) ①:50 신대동여지도(재)	40 네트워킹 기획 문화산책 ①:20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발칙한 사물이야기 다빈치 노트	35 MBC 뉴스 24 ①:05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①:05 씨네포트(재)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우아를 부탁해>	14:45 미앤마이로봇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우아를 부탁해>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10 세계 권문록 아틀라스	15:05 어린왕자	19:50 다문화 고부열전
07:00 시계마을 타기톡(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정글북	20:40 다크 오늘
07:15 곤(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50 모피와 친구들	20:50 세계대마기행 <살라말라 쿵 모로코>
07:30 책과 땅(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팔공산>
07:45 로보카 폴리(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버블버블 마린	21:50 EBS 다크 프라임 <한국인과 영어>
08:00 당동명 유치원	12:10 EBS 초대서	16:35 원더볼즈	22:45 극한직업
08:20 보통보통 보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3:35 세계권문록 아틀라스 <태평양 상문과 기행>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1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10 한국영화특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3:3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3:5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17:30 로보카 폴리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4:10 소프트웨어야 놀자	17:45 보통보통 보로로	
09:35 따개비 루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12:1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5:40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13:05 <윤정환의 영어>
07:50 <오광석의 수학 I>	14:00 고등에비교정 <김소연의 수학 II>
01:40 <오랜지의 영어>	14:50 <추혜연의 영어>
02:30 수능길잡이 <문학>	15:40 2016 수능열기 <오랜지의 영어>
03:20 <수학 I>	16:30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17:20 <오광석의 수학 I>
05:00 <영어특해 유형>	18:10 고등에비교정 <장동진의 국어>
06:40 <박근영의 미적분 I>	19:20 <최은진의 수학 I>
07:30 <차현우의 미적분 II>	20:00 <김소연의 수학 II>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0:50 <추혜연의 영어>
09:10 <독서와 문법>	21:50 수능길잡이
10:00 고등에비교정 <장동진의 국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0:50 <최은진의 수학 I>	22:50 도전 직업채널
11:40 박복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23:00 2016 수능개념 <추혜연의 영어>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한자교육 드라마
08:30 검정고시 교육 강좌	<어린이 손자병법>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3
09:50 <수학 I(하)>	18:00 TV 중학 <국어 ⑤⑥>
10:30 <수학 II>	18:40 <수학 3>
11:10 <국어 ③④>	19:20 과학탐정단 시드
11:50 <수학 2(하)>	19:40 사이틴-백만이의 지구뉴스
12:30 EBS 특강	20:00 EBS 인문학특강
13:10 중학 학습비법특강 <영어>	20:50 EBS 기획리포트
13:50 <영어2>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4:30 <역사>	22:00 중학 학습비법특강 <수학 3>
15:2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22:40 TV 중학 <국어 ⑤⑥>
15:4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23:20 필독 <사회2>
16:0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24:00 왕기초 중학 <수학 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4일음 12월 16일辛亥

子	48년생 재료가 좋아 대적이 나오는 법이다. 60년생 쓸모없다고 여겨왔던 것이 오히려 이롭다. 72년생 기반이 탄탄하면 될 일을 가지고 굶어서 부름을 내지 말자. 84년생 관계가 급속히 냉각 되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6, 93
丑	49년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스처와 채널이 절실히 필요하다. 61년생 새책이 찬 서리를 만나는 이치로다. 73년생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낫다. 85년생 지난해의 노고기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57
寅	38년생 고민 한다고 해서 즉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50년생 얽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느니라. 62년생 보람은 있을 것이다. 74년생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하느니라. 86년생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7, 50
卯	39년생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51년생 성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63년생 당당하게 나서자. 75년생 숨어있는 의미까지 파악하자. 87년생 제대로 인식해야 대처 방안도 명확해진다. 행운의 숫자 : 37, 77
辰	40년생 흑과 백만을 구분하려 하지 말고 회색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52년생 가마솥의 콩도 삶아야 먹을 수 있다. 64년생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하느니라. 76년생 쇠는 뜨거울 때 두드러라. 행운의 숫자 : 45, 18
巳	41년생 고진급해 하리라. 53년생 급선무를 보류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놓칠 수밖에 없느니라. 65년생 목에 부합하지 않다면 과감히 차차해도 된다. 77년생 앞날이 흰색 열리는 계기가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 : 30, 66

午	42년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확실해 해둘 필요가 있다. 54년생 쓸모없다면 미련 없이 버려라. 66년생 비교해보면 곧 알 수 있느니라. 78년생 온 힘을 기울인다면 손에 넣을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73, 07
未	43년생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둬도 자연히 해결 되리라. 55년생 현재 상황에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발단이 될 것이다. 67년생 열린 마음으로 눈의 한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79년생 자기하기 나름이다. 행운의 숫자 : 85, 89
申	44년생 눈앞의 현상에만 급급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망하자. 56년생 공물어렸던 것이 빛을 보게 되리라. 68년생 금권에 휘둘리게 될 수도. 80년생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서 만족해한다. 행운의 숫자 : 10, 22
酉	45년생 다투면 손해. 양보하면 득이 된다. 57년생 지극히 조그마한 차이이므로 무시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9년생 특징을 파악해야 처리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81년생 예상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도. 행운의 숫자 : 63, 11
戌	46년생 어떠한 구조로 설정 되느냐가 문제이다. 58년생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70년생 임시 상황이나 전혀 개념치 말라. 82년생 크게 한숨을 쉴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42
亥	47년생 다음을 앞에서도 화목할 수 있는 처세가 절실하다. 59년생 주변의 사정과 상관없이 의연하게 임한다. 71년생 주변을 잘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83년생 기준점으로부터 문젯거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5,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내 존재 이유는 대중 카멜레온 가수 될 것”

데뷔 40주년 전영록... 내달 8일 콘서트



“가수활동을 오래한 비결을 많이들 묻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드더라고요.” “영원한 오페라”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유효한 전영록(61)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데뷔 40주년을 맞이할듯스잡에 관한 질문에 “제가 흑백텔레비전 시절에 활동을 시작했으니 오래 하기는 했다”며 맛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곡을 잘 써서가 아니다. 가수들이 잘 불러준 덕분”이라며 겸손한 답을 내놨다. “여자가수들에게 준 노래는 히트가 꽤 됐는데 남자가수들에게 준 노래는 잘 안됐습니다. 결국 그 가수들이 잘 불러서 저한테 행운을 안겨준 거지요.”

그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히트곡 외에 다른 가수들이 부른 작곡곡도 ‘전영록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그러나 자신을 어떤 특정 장르의 가수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카멜레온처럼 이 장르, 저 장르 다 하는 가수로 남고 싶습니다. 트로트를 잘 못하는데 그것도 꺾으려면 또 잘 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980년대 활동한 가수들을 위한 무대가 부족한 현실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시봉”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 가수들과 ‘토토가’로 복고 열풍을 일으킨 1990년대 가수 사이에 끼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들 절 보고 왜 요즘 방송에 안보이느냐고 하는데 설 무대가 마땅치 않습니다. 노래하는 가수인데 말하는 프로그램만 있고, 나하면 쿵푸하라고만 하니 그다음부터는 안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당시 인기 댄스 가수였던 나미를 위해 ‘불티’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를 만들었으나 나미가 비슷한 느낌의 ‘빙글빙글’로 활동하자 하는 수 없이 직접 부른 것이 현재의 가수 전영록을 있게 했다는 것이다.

“가수활동을 오래한 비결을 많이들 묻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드더라고요.” “영원한 오페라”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유효한 전영록(61)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데뷔 40주년을 맞이할듯스잡에 관한 질문에 “제가 흑백텔레비전 시절에 활동을 시작했으니 오래 하기는 했다”며 맛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곡을 잘 써서가 아니다. 가수들이 잘 불러준 덕분”이라며 겸손한 답을 내놨다. “여자가수들에게 준 노래는 히트가 꽤 됐는데 남자가수들에게 준 노래는 잘 안됐습니다. 결국 그 가수들이 잘 불러서 저한테 행운을 안겨준 거지요.”

그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히트곡 외에 다른 가수들이 부른 작곡곡도 ‘전영록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그러나 자신을 어떤 특정 장르의 가수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카멜레온처럼 이 장르, 저 장르 다 하는 가수로 남고 싶습니다. 트로트를 잘 못하는데 그것도 꺾으려면 또 잘 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980년대 활동한 가수들을 위한 무대가 부족한 현실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시봉”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 가수들과 ‘토토가’로 복고 열풍을 일으킨 1990년대 가수 사이에 끼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들 절 보고 왜 요즘 방송에 안보이느냐고 하는데 설 무대가 마땅치 않습니다. 노래하는 가수인데 말하는 프로그램만 있고, 나하면 쿵푸하라고만 하니 그다음부터는 안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당시 인기 댄스 가수였던 나미를 위해 ‘불티’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를 만들었으나 나미가 비슷한 느낌의 ‘빙글빙글’로 활동하자 하는 수 없이 직접 부른 것이 현재의 가수 전영록을 있게 했다는 것이다.

“가수활동을 오래한 비결을 많이들 묻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드더라고요.” “영원한 오페라”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유효한 전영록(61)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데뷔 40주년을 맞이할듯스잡에 관한 질문에 “제가 흑백텔레비전 시절에 활동을 시작했으니 오래 하기는 했다”며 맛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곡을 잘 써서가 아니다. 가수들이 잘 불러준 덕분”이라며 겸손한 답을 내놨다. “여자가수들에게 준 노래는 히트가 꽤 됐는데 남자가수들에게 준 노래는 잘 안됐습니다. 결국 그 가수들이 잘 불러서 저한테 행운을 안겨준 거지요.”

그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히트곡 외에 다른 가수들이 부른 작곡곡도 ‘전영록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그러나 자신을 어떤 특정 장르의 가수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카멜레온처럼 이 장르, 저 장르 다 하는 가수로 남고 싶습니다. 트로트를 잘 못하는데 그것도 꺾으려면 또 잘 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980년대 활동한 가수들을 위한 무대가 부족한 현실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시봉”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 가수들과 ‘토토가’로 복고 열풍을 일으킨 1990년대 가수 사이에 끼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들 절 보고 왜 요즘 방송에 안보이느냐고 하는데 설 무대가 마땅치 않습니다. 노래하는 가수인데 말하는 프로그램만 있고, 나하면 쿵푸하라고만 하니 그다음부터는 안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당시 인기 댄스 가수였던 나미를 위해 ‘불티’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를 만들었으나 나미가 비슷한 느낌의 ‘빙글빙글’로 활동하자 하는 수 없이 직접 부른 것이 현재의 가수 전영록을 있게 했다는 것이다.

“가수활동을 오래한 비결을 많이들 묻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드더라고요.” “영원한 오페라”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유효한 전영록(61)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데뷔 40주년을 맞이할듯스잡에 관한 질문에 “제가 흑백텔레비전 시절에 활동을 시작했으니 오래 하기는 했다”며 맛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곡을 잘 써서가 아니다. 가수들이 잘 불러준 덕분”이라며 겸손한 답을 내놨다. “여자가수들에게 준 노래는 히트가 꽤 됐는데 남자가수들에게 준 노래는 잘 안됐습니다. 결국 그 가수들이 잘 불러서 저한테 행운을 안겨준 거지요.”

그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히트곡 외에 다른 가수들이 부른 작곡곡도 ‘전영록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그러나 자신을 어떤 특정 장르의 가수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카멜레온처럼 이 장르, 저 장르 다 하는 가수로 남고 싶습니다. 트로트를 잘 못하는데 그것도 꺾으려면 또 잘 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980년대 활동한 가수들을 위한 무대가 부족한 현실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시봉”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 가수들과 ‘토토가’로 복고 열풍을 일으킨 1990년대 가수 사이에 끼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들 절 보고 왜 요즘 방송에 안보이느냐고 하는데 설 무대가 마땅치 않습니다. 노래하는 가수인데 말하는 프로그램만 있고, 나하면 쿵푸하라고만 하니 그다음부터는 안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당시 인기 댄스 가수였던 나미를 위해 ‘불티’와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를 만들었으나 나미가 비슷한 느낌의 ‘빙글빙글’로 활동하자 하는 수 없이 직접 부른 것이 현재의 가수 전영록을 있게 했다는 것이다.



“‘미생’ 울며 불며 봤다 인간의 이야기 감동”

새 주말극으로 컴백 앞둔 김수현 작가

“드라마라는 건 사람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얘기를 쓰면서, 그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작년에 ‘유나의 거리’와 ‘미생’을 아주 잘 봤어요.”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노(老) 작가의 목소리는 흔들림없이 카랑카랑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실려오는 생각은 젊었다. 한국 드라마계의 대모 김수현(72) 작가는 2일 제주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2009년 명예 제주도민으로 위촉된 이래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는 김 작가는 “올해는 작품 계획이 없어 제주도에 많이 지내고 있다.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말했다.

드라마 시청률은 갈수록 양극화되고, 그런 와중에 비슷한 ‘스팩’을 갖춘 ‘막장 드라마’가 아찔자극으로 범람하는 상황에서 이 백전노장 드라마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TV를 보고 있을지 궁금해 전화를 걸었던 터였다. 사원시원한 어법의 김 작가는 ‘막장 드라마’ 얘기가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진짜에 (이런 거 안보고) 은퇴했어야 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그간 막장 드라마의 폐해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지적한 터라 ‘더는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은 그는 “더 말했자 욕이나 먹을 것”이라며 절정 웃었다.

대신 그는 “‘유나의 거리’와 ‘미생’을 아주 잘 봤다. ‘유나의 거리’는 내 홈페이지를 통해 두어 차례 언급했는데 곧바로 또 ‘미생’을 이야기하는 게 좀 그래서 ‘미생’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참 잘했다”고 말했다.

‘미생’은 주로 30~40대 직장인이 열광한 드라마였다.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며 지금도 후폭풍이 강하지만 70대 작가가 애정했다는 경험담은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무자식 상팔자’ ‘천일의 약속’ ‘인생은 아름다워’ 등 그가 최근 4년간 선보인 작품을 보면 작가의 마음과 필력의 나이가 얼마나 젊은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드라마에서 시청률은 젊은이들의 몫은 어느 젊은 작가의 그것들

무색하게 만든다.

김 작가는 “‘미생’을 울며불며 봤다. 애들이 너무 가여웠고 안스러웠다. 난 그 드라마를 재미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장인만 공감하란 법 없어요. 자식 가진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잖아요. 인물들 모두 현실에 있음직한 사람들이었고요. 배우들은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싶게 잘 짰어요.”

두 팔 벌린 극찬이었다.

“쉬고 있을 때는 거의 모든 드라마를 1~2회는 다 챙겨봐요. 그러고서 마음에 들면 계속 따라가죠. 막장 드라마가 넘쳐나는 것을 보면 회의를 느끼다가도 ‘미생’ 같은 거 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률이 하늘을 찌르도 황당한 이야기는 안 보게 되고 음모, 술수, 잔꾀는 불쾌해서 못 보는 과묵한 사람이라, 멈추고 불만만, 기다려서 보는 드라마를 그리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면서 ‘유나의 거리’의 김은경(61) 작가에 대해 “따뜻한 마음과 시각이 진정한 무덤으로 부럽다. 동업자인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화제 속에 막을 내린 SBS TV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후 쓴다는 그는 2015년 초 SBS 50부작 주말드라마를 통해 컴백할 예정이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쓸 겁니다. 물 같은 얘기를 쓸 거예요. 보다가 고요히 잠들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쓰려고 합니다. 시청률은 모르겠어요. 시청률과 작품성은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SBS에다가는 1.2%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하.”

종편채널에서 방송한 ‘무자식 상팔자’도 시청률 10%를 넘긴 작가의 말이나 ‘물론’ 놓이다.

김 작가는 “요즘 작가들이 죽을 힘을 다해도 시청률 10%를 넘기가 어려워졌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드라마가 장난도 아니고, 인간의 얘기를 그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허방기에 신작 집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휴뉴스